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 우리 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확인된 이래, 약 1년 반 동안 코로나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노력해주고 계신 의료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시는 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고 있으며, 효고현의 신규 확진자 수도 어제 329명, 오늘 317명으로, 정부가 정한 코로나 감염 상황 지표 스테이지 4 수준에 접어드는 등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현에 내일(8월 2일)부터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적용됩니다.

현민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께는 ①외출 자제 ②음식점 등의 단축 영업과 조치 구역에서의 주류 제공 금지 ③이벤트 개최 제한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 긴급사태가 선언될 것이고, 또한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현민 모두 하나 되어 극복합시다.

2021년 8월 1일

효고현 지사 사이토 모토히코
(齋藤 元彦)